

개미에 의한 피부질환 발생에 관한 연구

박성준, 김병진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곤충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은 쏘는 곤충 또는 무는 곤충에 의한 피부 알레르기와 곤충에서 나오는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호흡기 알레르기 등이 있다. 쏘는 곤충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은 벌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개미독에 의한 것은 벌독의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드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남서부 지방에서 개미독에 의한 전신 반응이 벌독을 능가할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개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개미는 벌독의 개미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세계적으로 10,000 여종 이상이 보고되었다. 이 중에서 독액에 의해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개미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미국 남서부의 불개미 (Fire ant; *Solenopsis spp.*)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매우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독액에 의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예도 보고되고 있다. 개미독 알레르기에 대한 국내보고는 왕침개미 *Pachychondyla chinensis* (Kang *et al.*, 1985; Kim & Hong, 1992; Park, *et al.*, 1996; Kwon, *et al.*, 1999; Hong, *et al.*, 1999; Bae, *et al.*, 1999; Kim, *et al.*, 2001)와 참장님침개미 *Euponera chosensis* (Park, *et al.*, 1995)에 의한 알레르기 보고가 있다.

개미독에 의한 과민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반응은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이고, 호흡곤란, 천식, 흉부압박감 등이다. 순환기 계통의 증상으로 혈압하강과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고, 위장계통과 신경계통의 증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개미독에 의한 치료는 과민반응에 대한 응급요법과 대중요법, 면역요법 등이 있으며, 현재 개미에 의한 쇼크와 기관지 천식, 비염 등의 치료에 면역요법을 이용하고자 알레르기 성분을 조사중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관찰되는 개미에 의한 피부질환의 발병양상, 빈도, 증상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미가 매개하는 질환의 연구는 면역학적 연구와 진단 및 면역요법을 위한 치료약제 개발에 필수적이라 생각된다.